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 비교연구

-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ding Behavior between Children of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Members Versus
Non-member Children: Based on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김 은 옥 (Eun Ok Kim)*

< 목 차 >

I. 서론
II. 독서행태

III. 결론 및 제언

요약: 이 연구는 부모의 독서 활동이 자녀의 독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회원 자녀와 일반인·일반인 자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국 5개 특별광역시 초등학교생 477명, 학부모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독서행태를 조사하였다. 독서행태는 독서 빈도, 도서 선택정보원, 독서 인식, 선호도서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회원 자녀와 일반인·일반인 자녀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회원 자녀가 일반인·일반인 자녀보다 양질의 독서행태를 보여 독서 빈도가 높고, 도서선택정보원을 활용하였다. 독서 인식에서는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회원 자녀가 독서 목적에서 학습보다는 즐거움으로 인식을 하였다. 선호도서에서는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회원 자녀가 우리 창작동화, 그림책 위주의 도서를 선택하였으며 일반인·일반인 자녀는 우리 창작동화, 그림책, 학습만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독서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독서 참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독서행태, 독서지도, 독서교육, 어린이 책, 어린이도서연구회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members of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versus general public and their children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how parents' reading activities affect children's reading activities. The study surveyed 477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483 parents from five special metropolitan cities regarding their reading behaviour. Reading behavior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reading frequency, book selection information source, reading awareness, and preferred book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embers of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and children of the general public. Members of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ir children showed superior reading habits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than non-members and their children, and the book selection information service was used. In terms of perception regarding reading,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members and their children found more "joy" in reading than "help in learning" a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children. In terms of reading preference, children's reading and culture movement organization members and their children intensively preferred Korean creative fairy tales and picture books while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children preferred Korean creative fairy tales, picture books, and educational comics. In order to create a healthier reading culture and environment for the long term, the development of more active reading participation methods for the general public is required.

KEYWORDS: Reading Behaviour, Reading Guidance, Reading Education, Children's Book,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keo082@hanmail.net / ISNI 0000 0004 7478 6827)

- 논문접수: 2021년 5월 21일
- 최초심사: 2021년 5월 28일
- 게재확정: 2021년 6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45-64,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45>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린이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한 학기 한 책 읽기’, ‘북 스타트 운동’, ‘아침 독서 운동’ 등 여러 형태의 책 읽기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책 출판도 2020년 통계를 보면 대한출판문화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2021)의 신간 발행 부수는 전년도보다 8.6% 증가하여 독서교육의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김종성(2006, 255-259)에 따르면 학생들의 책 읽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특정 분야인 만화나 무협지에 치우쳐 있으며 교사나 부모는 독서를 권유하고 있으나 독서에 관한 대화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서행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 책 읽기의 지속성과 부모의 관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독서행태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어린이 독서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의 어린이 독서교육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독서교육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독서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

선행연구로서 기존의 독서 실태조사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학생 계층 및 집단의 독서량과 독서 인식, 독서 시간, 도서 입수 경로, 도서 선호 분야 등의 포괄적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주목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과 일반인,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역할이 어린이 독서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로는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선택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 독서를 학습이 아닌 독서문화 활동으로 실천하는 비영리단체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와 부모의 기본적인 독서행태를 조사하였다. 첫째, 일주일에 책은 얼마나 자주 읽는지의 독서 빈도를 조사하였다. 둘째, 도서 선택 정보원의 활용은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다. 셋째, 자녀와 부모의 독서 인식을 독서 목적과 책 읽어주기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넷째, 자녀와 부모의 선호도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선호도서의 성격과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선호도서의 경향을 분석하여 어린이 독서 운동 방향을 탐색해 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면 설문(96.3%)을 주로 하였으나 조사 시기 중간에 COVID 19가 급속히 퍼져 일부는 전화 설문(3.7%)을 하였다. 모집단은 층화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 비교연구

무작위 추출하여 초등학생 500명, 학부모 500명 모두 1,00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초등학생은 477명, 학부모는 483명이 참여하여 초등학생, 학부모 모두 96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일반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전국의 5개 특별광역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315명(66%), 학부모 249명(50.2%)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 의뢰하여 전국의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자녀·회원 학부모 각 162명(34%), 234명(49.8%)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설문 조사영역은 <표 1>과 같다. 여기에서는 각 영역에서 변인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설문 조사영역

항목	설문 조사영역	문항	선행연구 및 근거
기초정보	학년(연령), 성별, 지역별, 집단별	1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227-238
독서행태	주당 독서량, 독서량 만족도, 독서빈도, 참여 독서프로그램, 도서 입수방법, 선호도서 갈래, 선호도서 선택정보원,	7	대구광역시교육청(2006). 2006년 대구 학생 독서실태조사. 71-79
	독서 인식- 독서 목적, 책 읽어주기 경험	2	대구광역시교육청(2006). 2006년 대구 학생 독서실태조사. 71-79
	좋아하는 책, 기억에 남는 책,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순위별 자기 기입(10종)	1	어린이도서연구회(1986) 어린이와 책, 3, 2-14.

본 연구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해 설문 문항을 만들고 설문지 문항의 검증을 거쳐 2020년 1월 20일에서 2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자료입력 및 오류검증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구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 현황(초등학생)

단위: 명(%)

표본현황		성별		학년			지역				
구분	계	남	여	4학년	5학년	6학년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회원 자녀	162(100)	71(43.8)	91(56.2)	53(32.7)	53(32.7)	56(34.6)	47(29.0)	28(17.3)	20(12.3)	50(30.9)	17(10.5)
일반 자녀	315(100)	146(46.3)	169(53.7)	95(30.2)	108(34.3)	112(35.5)	57(18.1)	68(21.6)	69(21.9)	51(16.2)	70(22.2)

<표 3> 조사대상 현황(학부모)

단위: 명(%)

표본현황		성별		나이			지역				
구분	계	남	여	30대	40대	50이상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회원	234(100)	0	234(100)	24(10.2)	160(68.4)	50(21.4)	54(23.1)	55(23.5)	36(15.4)	51(21.8)	38(16.2)
일반	249(100)	13(5.2)	236(94.8)	29(11.6)	193(77.5)	27(10.9)	51(20.5)	52(20.8)	49(19.7)	51(20.5)	46(18.5)

3. 선행연구

초등학생, 학부모의 독서행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서 실태조사를 살펴본다. 조사 주체에 따라 국가기관, 교육청, 독서 운동단체, 개인 연구로 나뉜다.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99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독서 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로서 2019년 조사에서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6,000명), 초·중·고생(3,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독서 생활, 독서량과 책의 선택, 독서환경,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참여, 독서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학생의 경우,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한 연간 독서율'은 초·중·고 학생 91.9%이며 2017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2019년 새로 추가한 오디오 북을 포함한 조사에서는 학생이 92.1%로 나타났다. 독서 권장에서 초·중·고 학생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독서량이 더 많았다. 참여하고 싶은 독서프로그램은 '독서 퀴즈 대회'(32.3%)를 선호한다고 조사했다.

각 교육청 단위의 독서실태 조사에서 특히 대구 교육청의 2006년 조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독서 교육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대구시 초·중·고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독서 선호분야는 동화(27.6%), 만화(23.2%), 역사/위인전(17.2%), 과학(12.2%)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자료 입수 방법에서는 학생들은 직접 사서 본다(26.0%), 학교도서관에서 빌려 본다(13.8%), 집에 있는 책을 본다(13.4%),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12.7%), 친구에게 빌려 본다(11.6%)로 나타났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5년을 주기로 선호도서를 조사하였다. 학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 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3~6학년 학생과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 10권'을 조사했다. 당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조사는 어린이 책 선호에 대해 처음 실행한 조사였으며 이의 조사에서 전집 중심의 세계 명작동화의 선호에서 단행본 중심의 우리 창작동화 선호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분석했다.

개인 연구는 특정 학교 집단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경우와 특정 지역의 특정 학년 집단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정 학교 집단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개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이(2004)는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를 선정해 독서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독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과 가정에서의 독서 활동이 독서 흥미 및 동기유발을 가져온다고 했다. 김순자(2006)는 마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즐거운 마음보다 마지못해 책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흥미나 재미, 감각을 자극하는 책을 선호한다고 했다. 특정 지역의 특정 학년 집단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권명숙(2008)

은 김천지역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목적은 지식과 정보습득, 독서 선호분야는 동화 소설책이며 학습효과 관계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계적인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해숙(2014)은 안양시 소재 초등 5학년의 독서실태를 조사하여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독서환경이 나쁠수록 독서가 감소한다고 했다.

정부, 교육청, 독서 운동단체, 연구자의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출판물이 증가하고 독서환경이 개선되었다. 둘째,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확대 설치되고 있고 어린이 전담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는 학습으로 인식되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은 미흡하여 독서 선호분야는 만화, 공포 이야기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어린이의 독서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독서행태조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 책 공부를 정기적으로 하는 부모의 독서 모임이 어린이의 독서행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는 독서행태 조사가 필요하다.

II. 독서행태

1. 독서빈도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과 일반인은 전반적인 독서행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당 독서량, 독서 만족도 등 여러 분야를 조사했을 때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과 자녀는 특히 독서빈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독서빈도가 높은 '매일 읽는다'와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를 보면 초등학생은 477명 중 401명(84.1%), 학부모는 483명 중 306명(63.3%)으로 초등학생이 학부모보다 독서빈도가 높아 초등학생이 학부모보다 책을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 경우는 일반인보다 독서빈도가 높아 회원은 186명(79.5%), 일반인은 120명(48.2%)으로 나타나 회원이 책을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안 읽는다'라는 비율에서도 회원 자녀는 0명(0%)에 반해 일반 자녀는 10명(3.2%)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원은 4명(1.7%)에 반해 일반인은 32명(12.8%)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과 회원 자녀는 일반인과 일반 자녀보다 책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부모, 자녀가 어린이 책을 더 자주 읽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책을 대하는 부모의 관심, 태도에 따라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독서빈도

단위: 명(%)

구분	초등학생			학부모		
	계	회원	일반	계	회원	일반
매일 읽는다	144(30.2)	52(32.0)	92(29.2)	61(12.6)	39(16.7)	22(8.8)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257(53.9)	91(56.2)	166(52.7)	245(50.7)	147(62.8)	98(39.4)
한 달에 한 두 번 읽는다	41(8.6)	15(9.3)	26(8.3)	89(18.4)	35(15.0)	54(21.7)
몇 달에 한 번 읽는다	24(5.0)	4(2.5)	20(6.3)	52(10.8)	9(3.7)	43(17.3)
전혀 안 읽는다	10(2.1)	0(0)	10(3.2)	36(7.5)	4(1.7)	32(12.8)
무응답	1(0.2)		1(0.3)			
합계	477(100)	162(100)	315(100)	483(100)	234(100)	249(100)

2. 도서 선택 정보원

어린이들은 책을 선택할 때 대체로 부모의 추천이 높으나 회원 자녀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목록을 도서 선택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는 더 뚜렷하여 회원은 50% 가까이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목록을 참고하지만, 일반인은 학교도서관의 도서 안내장이나 미디어 매체의 광고를 더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 자녀(42.6%)가 일반 자녀(31.7%)보다 부모의 추천이 높은 것을 볼 때 회원은 일반인보다 도서 선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은 50% 정도가 도서 선택 정보원으로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목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12%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과 회원 자녀는 풍부한 도서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과 일반 자녀는 양질의 풍부한 도서선택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도서 선택 정보원(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초등학생			학부모		
	계	회원	일반	계	회원	일반
선생님의 추천이나 숙제/가족의 추천	153(20.8)	37(14.3)	116(24.3)	24(2.7)	1(2)	23(4.9)
부모님의 추천/선생님 추천	261(35.5)	110(42.6)	151(31.7)	51(5.6)	3(7)	48(10.2)
친구의 추천	120(16.3)	35(13.6)	85(17.8)	112(12.4)	51(11.8)	61(13.0)
신문, 잡지, TV, 유튜브 등의 광고	82(11.2)	20(7.8)	62(13.0)	201(22.3)	79(18.3)	122(26.0)
책을 추천하는 도서 안내장(학교, 도서관 소개)	72(9.8)	22(8.5)	50(10.5)	244(27.1)	85(19.6)	159(33.9)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목록	47(6.4)	34(13.2)	13(2.7)	270(29.9)	214(49.4)	56(12.0)
합계	735(100)	258(100)	477(100)	902(100)	433(100)	469(100)

3. 독서 인식

독서 인식에 대한 조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독서 목적으로 자녀, 부모 모두에게 어린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문하였다. 둘째는 책 읽어주기 경험에 대해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어른이 책을 읽어주는가를,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서 주변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준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 조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여러 독서목적 가운데 <표 6>에서는 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학습에 도움'과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의 항목을 발췌하여 긍정적 답변인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독서 목적

독서 목적의 조사에서는 대체로 일반 자녀와 일반인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독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 자녀와 회원은 독서의 즐거움에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회원 자녀와 회원은 독서와 학습을 별개로 인식하며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독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자녀와 일반인은 독서와 학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의 선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6> 독서 목적

단위: 명(%)

구분	초등학생			학부모		
	계	회원	일반	계	회원	일반
		M(SD)	M(SD)		M(SD)	M(SD)
학습에 도움	227(47.6)	59(36.4)	168(53.4)	226(47.1)	62(26.7)	164(66.2)
		3.06(1.10)	3.51(1.08)		2.74(1.13)	3.69(1.02)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	262(54.9)	103(63.6)	159(50.5)	406((79.1)	227(97.0)	179(71.9)
		3.73(1.14)	3.43(1.20)		4.60(.54)	3.94(.91)

나. 책 읽어주기 경험

책 읽어주기 경험에서 일반 자녀의 경우는 '전혀 읽어주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62.5%다. 회원 자녀의 경우는 '전혀 읽어주지 않는다'가 22.2%로 일반 자녀보다 적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 읽어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인은 27.7%, 회원은 15.4%로 일반인이 회원보다 책을 적게 읽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어주기의 빈도가 높은 '매일 읽어준다'와 '일주일에 한두 번 읽어준다'라는 경우 회원은 52.5%, 일반인은 41.0%로 회원이 책 읽어주기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책 읽어주기 경험에서 초등학생은 50% 정도가 '전혀 읽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22% 정도로 나타나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책 읽어주기 경험

단위: 명(%)

구분	초등학생			학부모		
	계	회원	일반	계	회원	일반
매일 읽어 준다	29(6.1)	17(10.5)	12(3.8)	74(15.3)	42(17.9)	32(12.9)
일주일에 한두번 읽어준다	76(16.0)	40(24.7)	36(11.4)	151(31.3)	81(34.6)	70(28.1)
한달에 한두번 읽어준다	102(21.4)	51(31.5)	51(16.2)	152(31.5)	75(32.1)	77(30.9)
전혀 읽어주지 않는다	233(48.8)	36(22.2)	197(62.5)	105(21.7)	36(15.4)	69(27.7)
그밖에	15(3.1)	6(3.7)	9(2.9)			
무응답	22(4.6)	12(7.4)	10(3.2)	1(0.2)		1(0.4)
합계	477(100)	162(100)	315(100)	483(100)	234(100)	249(100)

4. 선호도서

선호도서 조사는 그동안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책을 10분 안에 10권을 적도록 하였다. 이 조사 방법을 택한 이유는 어린이, 어른이 좋아하는 갈래, 작품, 작가 등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 갈래별 선호도

전체 갈래는 우리 창작동화, 세계 명작동화, 역사·인물, 자연과학, 외국 창작동화, 철학·종교, 동요·동시, 그림책, 옛이야기, 만화, 사회과학, 예술, 기타, 미상까지 모두 14갈래로 구분하였다. 이 중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대표 갈래(우리 창작동화, 외국 창작동화, 그림책, 만화, 역사·인물, 세계 명작동화)를 중심으로 회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대표 갈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린이, 학부모 모두 80% 이상이였다.

(1)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전반적 경향

초등학생의 총 도서 종수와 횟수는 1,712종(3,706회)이다. 우리 창작동화 486종(28.4%), 외국 창작동화 279종(16.3%), 그림책 212종(12.3%), 만화 163종(9.5%), 기타 119종(6.9%), 역사·인물 104종(6.1%), 세계 명작동화 103종(6.0%), 자연과학 73종(4.3%), 사회과학 54종(3.2%), 미상 55종(3.2%), 옛이야기 39종(2.3%), 예술 17종(1.0%), 동요·동시 5종(0.3%), 철학·종교 3종(0.2%) 순으로 나타났다.¹⁾ 만화의 종수가 다소 낮게 나온 이유는 시리즈가 많아 시리즈는 한 종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국내 작품과 국외 작품의 비율은 6:4 정도로 2,154종(59.8%)과 1,446종(40.2%)이다. 회원 자녀의 국내 작품과 국외 작품의 비율은 838종(60.0%),

1) 갈래를 세분화하지 않고 청소년 문학은 각각 우리 창작동화, 외국 창작동화로 분류하였다. 특히 서양 고전이라 볼 수 있는 18~19세기 동화는 세계 명작동화로 분류하였다. 기타 갈래(119종)는 주로 성인소설이며, 미상(55종)은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고 검색이 안 되는 작품이다.

558종(40.0%)이며 일반 자녀는 1,316종(59.7%), 1,446종(40.2%)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학부모의 총 도서 종수와 횟수는 1,613종(3,661회)이다. 그림책 694종(41.1%), 우리 창작동화 345종(21.4%), 외국 창작동화 192종(11.9%), 기타 60종(3.7%), 세계 명작동화 53종(3.3%), 미상 51종(3.2%), 만화 50종(3.1%), 사회과학 46종(2.9%), 역사·인물 43종(2.7%), 자연과학 41종(2.5%), 동요·동시 29종(1.8%), 옛이야기 26종(1.6%), 철학·종교 8종(0.5%), 예술 5종(0.3%) 순이다. 학부모의 국내 작품과 국외 작품의 비율은 7:3 정도로 전체적으로 2,165종(58.6%)과 1,420종(41.4%)이다. 회원의 국내 작품과 국외 작품의 비율은 1,426종(66.8%), 709종(33.2%)이며 일반인은 739종(51.0%), 711종(49.0%)이다. 이로써 회원 자녀와 회원이 일반 자녀와 일반인보다 국외 작품보다는 국내 작품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도서관연구회가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로서 국내 작품 중심의 권장 운동을 지속해서 해온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로 볼 수 있다. <표 8>은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갈래별 총 도서 종수와 거론된 횟수를 나타낸다.

<표 8> 선호도서 갈래별 현황

갈래	초등학생		학부모	
	도서종수	횟수	도서종수	횟수
우리 창작동화	486 (28.4)	1,135 (30.6)	345 (21.4)	1,090 (29.8)
세계 명작동화	103 (6.0)	343 (9.3)	53 (3.3)	102 (2.8)
역사·인물	104 (6.1)	193 (5.2)	43 (2.7)	60 (1.6)
자연과학	73 (4.3)	97 (2.6)	41 (2.5)	43 (1.2)
외국 창작동화	279 (16.3)	673 (18.2)	192 (11.9)	492 (13.4)
철학종교	3 (0.2)	5 (0.1)	8 (0.5)	13 (0.4)
동요·동시	5 (0.3)	5 (0.1)	29 (1.8)	41 (1.1)
그림책	212 12.3	323 (8.7)	664 (41.1)	1,453 (39.6)
옛이야기	39 (2.3)	62 (1.7)	26 (1.6)	33 (0.9)
만화	163 (9.5)	550 (14.8)	50 (3.1)	98 (2.7)
사회과학	54 (3.2)	62 (1.7)	46 (2.9)	47 (1.3)
예술	17 (1.0)	17 (0.5)	5 (0.3)	5 (0.1)
기타갈래	119 (6.9)	186 (5.0)	60 (3.7)	127 (3.5)
작품미상	55 (3.2)	55 (1.5)	51 (3.2)	57 (1.6)
합계	1,712 (100.0)	3,706 (100.0)	1,613 (100.0)	3,661 (100.0)

(2) 대표 갈래의 비교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갈래에서 대표 갈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성별, 학년별, 집단별로 알아보았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우리 창작동화(27.3%), 만화(18.3%), 외국 창작동화(17.0%), 세계 명작동화(9.0%), 그림책(6.9%), 역사·인물(6.1%) 순으로 선호하여 우리 창작동화 다음으로 만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 갈래에서 대표 갈래의 비중은 84.6%를 차지한다. 여학생은 우리 창작동화(33.1%), 외국 창작동화(19.0%), 만화(12.3%), 그림책(10.1%), 세계 명작동화(9.4%), 역사·인물(4.5%) 순으로 우리 창작동화 다음으로 외국 창작동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갈래에서 대표 갈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8.4%이다.

학년별로 4학년은 우리 창작동화(27.8%), 외국 창작동화(18.8%), 만화(15.0%), 그림책(12.0%), 세계 명작동화(9.0%), 역사·인물(5.7%)로 전체에서 대표 갈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8.3%, 5학년은 우리 창작동화(31.5%), 만화(17.5%), 외국 창작동화(16.0%), 그림책(8.6%), 세계 명작동화(7.8%), 역사·인물(5.6%)로 전체에서 대표 갈래의 비중은 87%, 6학년은 우리 창작동화(32.3%), 외국 창작동화(19.7%), 만화(12.1%), 세계 명작동화(10.9%), 그림책(5.7%), 역사·인물(4.3%)로 전체에서 대표 갈래의 비중은 85%를 차지한다.

집단별에서는 회원 자녀는 우리 창작동화(38.9%), 외국 창작동화(20.6%), 그림책(11.3%), 만화(10.3%) 세계 명작동화(7.1%), 역사·인물(3.0%) 순으로 전체에서 91.2%, 일반 자녀는 우리 창작동화(25.5%), 만화(17.7%), 외국 창작동화(16.7%), 세계 명작동화(10.6%), 그림책(7.1%) 역사·인물(6.5%) 순으로 84.1%를 차지한다. 대표 갈래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성별, 학년별은 모두 80% 내외나 회원 자녀는 91.2%로 일반 자녀의 84.1%보다 높다.

회원 자녀는 우리 창작동화, 외국 창작동화, 그림책 갈래를 선호하였으며 일반 자녀는 우리 창작동화, 만화, 외국 창작동화 갈래를 선호하여 회원 자녀와 일반 자녀의 선호도서 갈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 자녀의 우리 창작동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자녀보다 높은 것은 앞의 국내 작품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이 어린이도서연구회가 꾸준히 우리 창작동화를 권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부모는 전체에서 대표 갈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이대별로 모두 85% 이상으로 높다. 모든 나이대에서 선호 갈래는 그림책, 우리 창작동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0대는 그림책(46.2%)의 선호가 다른 갈래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에서는 회원은 우리 창작동화(39.3%)와 그림책(37.8%)의 비중이 비슷하다. 일반인은 격차가 크게 나타나 우리 창작동화(16.2%)보다 그림책(42.4%)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림책, 우리 창작동화, 외국 창작동화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공통점은 우리 창작동화의 비중은 높고 세계 명작동화의 비중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초등학생은 우리 창작동화, 만화의 비중이 높고 학부모는 그림책, 우리 창작동화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표 9>, <표 10>은 초등학생, 학부모의 성별, 학년별(나이별), 집단별 비교이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 비교연구

〈표 9〉 선호도서 현황(초등학생)

갈래	합계	성별		학년별			집단별	
		남	여	4	5	6	회원자녀	일반자녀
우리 창작동화	1,135 (30.6)	427 (27.3)	708 (33.1)	326 (27.8)	399 (31.6)	410 (32.3)	549 (38.9)	586 (25.5)
세계 명작동화	343 (9.3)	141 (9.0)	202 (9.4)	106 (9.0)	98 (7.8)	139 (10.9)	100 (7.1)	243 (10.6)
외국 창작동화	673 (18.2)	266 (17.0)	407 (19.0)	220 (18.8)	202 (16.0)	251 (19.7)	291 (20.6)	382 (16.7)
그림책	323 (8.7)	108 (6.9)	215 (10.1)	141 (12.0)	109 (8.6)	73 (5.7)	159 (11.2)	164 (7.1)
만화	550 (14.8)	286 (18.3)	264 (12.3)	176 (15.1)	221 (17.5)	153 (12.1)	145 (10.3)	405 (17.7)
역사·인물	193 (5.2)	96 (6.1)	97 (4.5)	67 (5.7)	71 (5.6)	55 (4.3)	43 (3.0)	150 (6.5)
대표 갈래 합계	3,217 (86.8)	1,324 (84.6)	1,893 (88.4)	1,036 (88.4)	1,100 (87.1)	1,081 (85.0)	1,287 (91.1)	1,930 (84.1)
전체 갈래 합계	3,706 (100)	1,565 (100)	2,141 (100)	1,172 (100)	1,263 (100)	1,271 (100)	1,412 (100)	2,294 (100)

〈표 10〉 선호도서 현황(학부모)

갈래	합계	나이별				집단별	
		30	40	50이상	무응답	회원	일반
우리 창작동화	1,090 (29.8)	92 (27.4)	779 (29.9)	213 (33.0)	6 (8.3)	845 (39.3)	245 (16.2)
세계 명작동화	102 (2.8)	14 (4.2)	69 (2.6)	19 (2.9)	0 (0)	29 (1.4)	73 (4.8)
외국 창작동화	492 (13.4)	26 (7.8)	381 (14.6)	76 (11.8)	9 (12.5)	300 (14.0)	192 (12.7)
그림책	1,453 (39.7)	155 (46.2)	1,023 (39.2)	225 (34.9)	50 (69.4)	810 (37.8)	643 (42.4)
만화	98 (2.7)	9 (2.7)	72 (2.8)	17 (2.6)	0 (0)	32 (1.5)	66 (4.3)
역사·인물	60 (1.6)	5 (1.5)	45 (1.7)	9 (1.4)	1 (1.4)	18 (0.8)	42 (2.8)
대표 갈래 합계	3,295 (90.0)	301 (89.8)	2,369 (90.8)	559 (86.7)	66 (91.6)	2,034 (94.8)	1,261 (83.2)
전체 갈래 합계	3,661 (100)	335 (100)	2,609 (100)	645 (100)	72 (100)	2,145 (100)	1,516 (100)

* 무응답은 나이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선호도서는 응답하여 나타난 것임.

나. 주요 선호도서

선호도가 높은 도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좋아하는 도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5년 주기로 했던 조사를 이어 비교해보았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1981년, 1986년의 1, 2차에는 단행본보다는 전집을, 국내 도서보다는 외국 도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도서연구회, 1986a; 1986b). 3차 조사에서부터 국내의 도서 비율 격차가 좁아지고 세계 명작동화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몽실 언니》가 1위로 올라왔다. 당시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477명이 1,712종에 3,706권을 추천하여 한 사람당 평균 7.8권을 추천하였다. 평균 추천 권수는 큰 변화가 없다.²⁾ 5차까지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 선호도서에서 베스트셀러, 만화 갈래가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와 있다. 이중 《푸른 사자 와니니》, 《블랙아웃》, 《파리 신부》는 ‘동화동무씨동무’³⁾ 선정 도서이다. 주목할 것은 《푸른 사자 와니니》, 《블랙아웃》은 20회 이상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시작한 ‘동화동무씨동무’의 성과가 어린이 책 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만화가 1위, 3위의 선호 갈래로 나타난 것을 보면 여전히 읽기 쉬운 가벼운 흥미, 오락거리, 정보 위주의 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라이트 노벨, 추리, 탐정, SF, 호러·공포 시리즈가 눈에 띄었는데 오히려 초등 고학년이 많이 보고 있었다. 앞으로 초등 고학년이 가볍게 읽고 있는 이러한 도서에 대한 경향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독서 인식 또한 초등학생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이전 조사에서는 여전히 외국동화 중심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부모 483명이 1,613종의 책을 3,661회 추천하여 한 사람당 평균 7.6권을 추천하였다. 지난 조사와 크게 달라진 것은 세계 명작동화 중심에서 우리 창작동화, 그림책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위에 든 우리 창작동화 《몽실 언니》,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림책 《강아지 똥》은 꾸준히 사랑을 받는 작품이고 《푸른 사자 와니니》, 《해리엇》, 《초정리 편지》, 《책과 노니는 집》, 《돌 씹어 먹는 아이》는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책이며 그림책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은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추모상의 수상자인 백희나의 책이다.

2)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조사에서는 1차 6.05권, 2차 8.4권, 3차 8.80권, 4차 7.8권으로 나타났다(어린이도서연구회, 1981; 1986a; 1986b; 조월레, 2002).

3) 동화동무씨동무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시행하는 초등 3~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212개 모임에서 17,892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매년 12종의 우리 창작 동화를 엄선하여 동화동무씨동무책을 선정한다. 전국의 학급, 도서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북 토크를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가가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읽어준다(어린이도서연구회, 2020, 66-94).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 비교연구

학부모는 선호도서로 우리 창작동화를 345종(21.4%), 1,090회(29.8%) 추천하였다. 과거보다 갈래가 세분화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창작동화의 선호현상이 정착되었다고 본다. 그림책의 열풍을 실감할 수 있듯이 664종(41.1%)이 1,453회(39.6%) 추천되어 학부모의 독서 선호가 그림책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창작동화 갈래는 192종(11.9%)이 492회(13.4%) 거론되었으며, 세계 명작동화는 53종(3.3%)이 102회(2.8%) 추천되어 완전히 퇴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순위에서 오른 외국작품은 《빨강머리 앤》, 《어린 왕자》로 여전히 선호하는 베스트셀러의 책이다.

〈표 11〉 초등학생 선호도서 비교 (1981~2020)

회차 순위	본 연구 (2020)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사				
		1차(1981)	2차(1986)	3차(1990)	4차(1995)	5차(2000)
1	why?시리즈(82)	이순신(25)	소공녀(66)	몽실 언니(71)	삼국지(93)	허준과 동의보감(59)
2	해리포터시리즈(82)	소공녀(17)	소공자(38)	어린 왕자(48)	어린 왕자(91)	삼국지(58)
3	who?시리즈(52)	툼 소녀의 모험(16)	빨강머리 앤(35)	나의 라임오렌지나무(43)	이야기한국사(75)	몽실 언니(55)
4	빨강머리 앤(30)	보물섬(16)	호음즈(33)	이솝이야기(35)	이순신(69)	이순신(50)
5	푸른사자 와니니(26)	세종대왕(13)	이솝우화(33)	빨강머리 앤, 안네일기(34)	반갑다 논리아(57)	세익스피어 비극(43)
6	블랙아웃(21)	괴도 루팡(13)	장발장(28)	삼국지(33)	탈무드(48)	어린왕자(41)
7	수학도둑:메이플스토리(21)	소공자(13)	15소년표류기(27)	한국전래동화(31)	먼나라 이웃나라(41)	난중일기(34)
8	책 먹는 여우(18)	홍부와 놀부(12)	이순신(25)	콩쥐팥쥐(30)	나의 라임오렌지나무(39)	해리 포터 시리즈(31)
9	내이름은 뽀빠롱스타킹(17)	삼국지(12)	피노키오(24)	유관순, 신사임당, 이순신, 꼴찌안녕(29)	고맙다 논리아(39)	장영실(28)
10	살롱의 거미줄(17)/작은아씨들(17)	플란더즈의 개(12)	보물섬(24)	헬렌 켈러(28)	안네의 일기(38)	마지막 잎새(25)
11	영당이 탐정(17)	15소년 표류기(12)	링컨(23)	오싹오싹 공포체험(25)	명심보감(36)	못나도 울엄마(24)
12	파리 신부(17)	쿠오레(12)	세종대왕(22)	링컨(24)	마지막 잎새(36)	돌아온 잔뜩개 백구(23)

〈표 12〉 학부모 선호도서 비교 (1981~2020)

회차 순위	본 연구 (2020)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사				
		1차(1981)	2차(1986)	3차 (1990)	4차 (1995)	5차(2000)
1	몽실 언니(58)	삼국지(15)	소공녀(37)	삼국지(63)	삼국지(97)	몽실 언니(49)
2	강아지 똥(56)	툼 소녀의 모험(20)	이솝우화(34)	이순신(54)	반갑다 논리아(69)	삼국지 어린 왕자(47)
3	마당을 나온 암탉(46)	영클 톰스 캐빈(17)	장발장(32)	콩쥐팥쥐(50)	명심보감(65)	강아지 똥(31)
4	알사탕(39)	작은아씨들(17)	이순신(32)	심청전(48)	어린 왕자(64)	안네의 일기(31)
5	푸른 사자 와니니(34)	소공녀(17)	툼 소녀의 모험(19)	소공자(47)	탈무드(56)	탈무드(29)
6	어린 왕자(34)	15소년표류기(16)	심청전(17)	어린 왕자(44)	나의 라임오렌지나무(56)	내 짝꿍 최영대(22)

회차 순위	본 연구 (2020)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사				
		1차(1981)	2차(1986)	3차 (1990)	4차 (1995)	5차(2000)
7	초정리 편지(31)	로빈슨 크루소(12)	안테르센동화(16)	소공녀(38)	먼나라 이웃나라(46)	나의 리임 오렌지 나무(21)
8	장수탕 선녀님(31)	집 없는 아이(12)	빨강머리 앤(16)	장발장(36)	이야기한국사(44)	나쁜 어린이 표 이솝이야기(19)
9	책과 노니는 집(29)	서유기(12)	왕자와 거지(15)	신사임당, 흥부놀부(34)	이솝이야기(37)	너하고 안 놀아(17)
10	빨강머리 앤(28)	이순신(12)	걸리버 여행기(13)	집 없는 아이, 톰소여(31)	논리야 놀자(37)	그리스 로마 신화(16)
11	헤리엇(27)	헬렌 켈러(12)	삼국지, 소공자(3)	그림 없는 그림책, 몽실 언니(28)	안네의 일기(31)	명심보감, 해리 포터 시리즈, 옛이야기 보따리(15)
12	돌 씹어먹는 아이(25)	알프스의 소녀(10)	콩쥐팥쥐, 보물섬(12)	홍길동전, 플란더즈의 개(25)	이순신(31)	신기한 스톨버스 노인과 바다(14)

다. 집단별 선호도서

초등학생과 학부모에서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집단과 일반 집단은 선호도서 선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에서 국내 작품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회원 자녀는 우리 창작동화를 선호하였으나 일반 자녀는 학습만화를 선호하여 차이를 보였다.

회원 자녀의 국내 작품 선호에서 우리 창작동화 《푸른 사자 와니니》, 《헤리엇》, 《신호등 특공대》, 《분홍문의 기적》, 《블랙아웃》, 《알렙이 알렙에게》 6종은 문학 읽기 프로그램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도서이다. 반면 일반 자녀가 선호한 우리 창작동화는 3종으로 《블랙아웃》, 《아몬드》, 《파리 신부》다. 나머지는 학습만화이며 《why?》 시리즈, 《who?》 시리즈, 《수학 도둑: 메이플 스토리》에 60.8%로 집중되어 있다. 일반 자녀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 창작동화보다는 학습만화를 주로 보고 있어 어린이 책 읽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회원 자녀의 책 읽기에 학습만화보다는 우리 창작동화가 많은 것을 보면 부모의 책 읽기가 자녀의 책 읽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에서 회원과 일반의 국내 작품의 선호를 비교해보았다. 회원은 국내 작품의 선호에서 우리 창작동화 7종, 그림책 3종을 선택하였다. 회원은 우리 창작동화를 더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인은 우리 창작동화 2종, 그림책 5종으로 그림책을 더 선호했으며 특히 많이 알려진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선호하였다. 나머지 3종은 《why?》 시리즈, 《그리스로마신화》, 《마법 천자문》으로 학습만화를 선호하였다.

이로써 회원 집단은 초등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우리 창작동화를 선호했지만 일반 집단은 학습만화와 그림책의 선호가 높아 책 선택에 있어서 일반 집단은 베스트셀러, 학습만화, 흥미 위주의 책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국내 작품 선호도서 비교

초등학생				학부모			
회원		일반		회원		일반	
작품명	횟수(%)	작품명	횟수(%)	작품명	횟수(%)	작품명	횟수(%)
Why?시리즈	18(16.8)	Why?시리즈	64(31.1)	몽실 언니	47(17.1)	강아지 똥	26(21.3)
푸른 사자 와니니	17(15.9)	Who?시리즈	45(21.9)	마당을 나온 암탉	35(12.7)	why?시리즈	16(13.1)
해리엇	10(9.4)	수학도둑: 메이플스토리	16(7.8)	강아지 똥	30(10.9)	알사탕	15(12.3)
신호등 특공대	10(9.4)	블랙아웃	13(6.3)	푸른 사자 와니니	28(10.2)	장수탕 선녀님	12(9.8)
분홍문의 기적	8(7.5)	아몬드	13(6.3)	해리엇	26(9.5)	구름빵	11(9.0)
블랙아웃	8(7.5)	마법천자문	12(5.8)	초정리 편지	26(9.5)	초정리 편지	11(9.0)
알렙이 알렙에게	8(7.5)	내일은 실험왕	11(5.3)	알사탕	24(8.7)	그리스로마신화	9(7.4)
Who?시리즈	7(6.5)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1(5.3)	책과 노니는 집	21(7.6)	책과 노니는 집	8(6.7)
강아지 똥	7(6.5)	세종대왕	11(5.3)	돌 씹어 먹는 아이	19(6.9)	마법천자문	7(5.7)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7(6.5)	파리 신부	10(4.9)	장수탕 선녀님	19(6.9)	이상한 엄마	7(5.7)
몽실 언니	7(6.5)						
계	107(100)		206(100)		275(100)		122(100)

라. 집단별 선호 작가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회원 집단과 일반 집단에서 거론된 작품의 작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작가, 국외 작가를 모두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회원 자녀에서는 이현, 한윤섭, 권정생, 천효정, 김태호, 김리리, 송미경, 백희나, 최영희, 유은실 등으로 국내 작가의 선호가 높다. 일반 자녀에서는 다산어린이 편집부, 예림당 편집부, 박현숙, 송도수, 설민석, 스토리 A 등으로 학습만화 작가 혹은 기획집단을 선호하였다. 회원 자녀가 선호하는 작가는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도서의 작가가 대부분이며 일반 자녀의 선호하는 작가는 《Who?》 시리즈, 《Why?》 시리즈, 《수상한~》 시리즈, 《쿠키런 어드벤처》 시리즈, 《설민석의 한국사》 시리즈, 《내일은 실험 왕》 시리즈의 작가이다. 이로써 회원 자녀와 일반 자녀의 작품 선호는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회원은 우리 창작동화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모두 20회 이상 거론되었다. 일반인은 만화 갈래인 《Why?》 시리즈, 《그리스로마신화》, 《마법 천자문》의 작가, 우리 창작동화 작가, 그림책 작가로 분산되어 있다. 일반인의 작가 빈도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권정생, 백희나 55회, 황선미 17회로 세 작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작가의 빈도는 미비하다. 이로써 회원은 우리 창작동화 작가, 특히 동화동무씨동무로 선정된 작가를 선호하였으나 일반은 더욱 대중적인 작가, 학습만화의 작가를 기억하고 있다.

〈표 14〉 국내 작가 선호도 비교

초등학생				학부모			
회원		일반		회원		일반	
작가	횟수(%)	작가	횟수(%)	작가	횟수(%)	작가	횟수(%)
이현	30(15.3)	다산어린이편집부	45(18.9)	권정생	117(24.6)	권정생	55(27.0)
한운섭	22(11.2)	예림당편집부	39(16.4)	한운섭	62(13.1)	백희나	55(27.0)
권정생	21(10.7)	박현숙	20(8.4)	백희나	61(12.8)	황선미	17(8.4)
천효정	19(9.7)	송도수	20(8.4)	이현	54(11.4)	예림당편집부	14(6.9)
김태호	18(9.2)	진형민	19(8.0)	황선미	40(8.4)	박시연	9(4.4)
김리리	16(8.2)	설민석	18(7.6)	배유안	31(6.5)	안녕달	9(4.4)
송미경	15(7.7)	고정옥	16(6.7)	안녕달	29(6.1)	송미경	8(3.9)
최영희	15(7.7)	황선미	16(6.7)	김태호	29(6.1)	이영서	8(3.9)
진형민	14(7.1)	권정생	15(6.3)	송미경	26(5.5)	이춘희	8(3.9)
백희나	13(6.6)	이현	15(6.3)	유은실	26(5.5)	김현수	7(3.4)
유은실	13(6.6)	스토리 A	15(6.3)			이현	7(3.4)
						한운섭	7(3.4)
계	196(100)	계	238(100)	계	475(100)	계	204(100)

Ⅲ.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 회원 자녀와 일반인 자녀의 독서행태가 어떻게 차이나며 부모의 독서행태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로 나누어 회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독서행태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부모의 독서행태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과 자녀는 특히 독서빈도에서 차이를 보여 ‘매일 읽는다’와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에서 일반과 일반인 자녀보다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은 어린이 책을 매주 읽고 토론하는 삶의 패턴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더욱 양질의 책을 읽히려 하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어린이 책을 함께 읽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도서선택정보원의 활용에서도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이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목록을 많이 활용하여 일반인보다 양질의 어린이 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에게도 직접 영향이 미쳐 부모의 추천에 의존하는 행태에서 볼 때 회원 자녀가 일반 자녀보다 추천 도서 목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일반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목록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서 목적에 대한 인식에서 대체로 일반 자녀와 일반인은 현실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 자녀와 회원은 독서 자체의 즐거움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독서 인식의 차이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일반 자녀와 일반인은 책 읽어주기 경험이 회원 자녀와 회원보다 적거나 책 읽어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호도서 조사에서 일반 자녀와 일반인은 우리 창작동화와 만화, 그림책을 선호했지만, 회원 자녀와 회원은 우리 창작동화의 선호가 높았다. 반면 과거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세계 명작 동화의 선호가 거의 퇴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린이도서연구회가 그동안 꾸준히 우리 창작동화를 권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빈도 순위가 높은 도서로 회원 자녀와 회원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문학 읽기 프로그램인 '동화동무씨동무' 추천 도서를 뽑았으나 일반 자녀와 일반인은 학습만화와 그림책을 추천하여 여전히 베스트셀러, 흥미 위주의 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독서행태에서 벗어나 문학작품을 알리고 읽히기 위해 '동화동무씨동무'와 같은 문학 읽기 프로그램이 더욱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한기 한 작품 읽기', '온 작품 읽기'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이 문학 읽기 프로그램으로서 문학작품의 깊이 읽기와 감상에 충실할 수 있겠다.

여섯째, 국내 작가 선호에서도 회원 집단은 이현, 한윤섭, 권정생, 천효정, 김태호, 김리리, 송미경, 백희나, 최영희, 유은실 등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집단은 《Who?》 시리즈, 《Why?》 시리즈, 《수상한~》 시리즈, 《쿠기런 어드벤처》 시리즈, 《설민석의 한국사》 시리즈, 《내일은 실험 왕》 시리즈 작가, 《그리스로마신화》, 《마법 천자문》 작가를 선호하였다.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의 회원과 일반인의 독서 행태에서 나타난 차이를 볼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독서 참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대표적인 독서환경인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서비스에 훈련된 사서 교사 및 사서 등 전담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이 연구에서는 연구 여건상 다른 독서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담인력의 확충으로 다양한 북 클럽, 책 읽기 동아리 활동 등을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단체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도서선택 정보원을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명숙 (2008). 초등학교 고학년의 독서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김동이 (2004). 초등학교 학생의 독서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 김순자 (2006). 초등학생의 독서습관과 독서환경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 김은옥 (2019). 한국 어린이 독서 운동사 -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중심으로. 서울: 단비.
- 김종성 (2006).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향정립을 위한 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인문학논총, 11(2), 235-263.
- 김종성 (2007). 학교도서관 전담 전문 인력이 학생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173-194.
- 대구광역시교육청 (2006). 2006년 대구 학생 독서 실태 조사 (2007 장학자료-중등-243).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11-1371000-000154-10).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 2. 19.). 2020년 출판통계.
출처: http://member.kpa21.or.kr/kpa_bbs/2020
- 어린이도서연구회 (1981). 학부모와 어린이의 아동도서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사. 어린이 독서, 3, 3-18.
- 어린이도서연구회 (1986a).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사. 어린이와 책, 3, 2-14.
- 어린이도서연구회 (1986b).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 어린이도서연구회 조사. 어린이와 책, 18, 11-24.
- 어린이도서연구회 (2000. 4. 29.). 21세기 어린이 독서문화의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창립20주년 기념세미나,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어린이도서연구회 (2020. 2. 29.). 정기총회 12기 2019년 사업연도. 청년 문화 공간 JU 5층 니콜라오 홀.
- 장해숙 (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독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조월례 (2002. 5. 11.). 어린이 책 출판 현황과 전망. 어린이도서연구회 2002년 정기 세미나,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6). 2006 Daegu Student Reading Survey (2007 Scholarship Materials-Middle-243). Daegu: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Jang, Hae-Sook (201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Reading Habits of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Korea.
- Jo Wol Lye (2002, May 11).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children's book publication.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2002 Regular Seminar, Sejong Center for the Arts Conference Hall.
- Kim, Dong I (2004). An Analysis of the Elementary Students' Actuality of Reading and a Study on Reasonable Way to Guide Reading. Master's Thesis, Major in Librari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University, Korea.
- Kim, Eun Ok (2019). The History of the Reading Promotion Movement for Children in South Korea: Based on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Seoul: Danbi.
- Kim, Jong-Sung (2006). A study on reading behavior and culture of children and young adult: with special reference to Daegu. The Journal of Humanities, 11(2), 235-263.
- Kim, Jong-Su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 librarian on students' reading behavior: with special reference to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173-194.
- Kim, Sun-ja (2006).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ading Habits and their Reading Environments. Master's thesis, Major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1981). Report on the perception of children's books by parents and children: survey of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Children Reading, 3, 3-18.
-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1986a). A report on the awareness of children's books of children and parents: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Children and Books, 3, 2-14.
-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1986b). A report on the awareness of children's books of children and parents: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Children and Books,

18, 11-24.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2000, April 29). Prospects of children's reading culture in the 21st century.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20th Anniversary Seminar, Sejong Center for the Arts Conference Hall.

Korean Children's Book Association (2020, February 29). Regular General Meeting. Nikolao Hall on the 5th floor of JU, Youth Culture Spac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21, February 19). 2020 Publication Statistics.

Available: http://member.kpa21.or.kr/kpa_bbs/2020

Kyun, Myung-Suk (2008). The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ading Conditions. Master's thesis,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2019 National Reading Survey (11-1371000-000154-10). Seoul: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